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애민헌신의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끊이지 끊이지 오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드리는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사상과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시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고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관철에서 시대

와 력사가 부여한 자기들의 무거운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일본조선상봉연합회 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청년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교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민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민체육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인민문화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학예회 중앙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영화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연예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축진회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

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구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언젠가 총련에 귀국위업과 더불어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총련인구들과 제일동포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며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이시라고 축전들은 칭송하였다. 축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오늘 총련의 강화발전과 제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들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이러한 축전들은 밝았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집행단위인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올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등교육실시 75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집행단위인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올해를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구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민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구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민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인구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다함없는 흥분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제일조선인민운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 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알제리에서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경위원회 제1비서는 경축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드시어 조선의 부강발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조선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과 엄혹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는것은 바로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 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도 거대한 공헌을 하신 참다운 혁명가이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아무르주지

부위원회 제1비서는 강연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결출한 령도자이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전진하였으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우크라이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경축모임에 참가한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아들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다. 그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로골화되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론을 펼치시어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하시였다. 오스트리아 원 김일성-김정일의 연구소조 책임자, 알제리-조선친선협회 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조국의 립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진정

한 인민적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 김정일각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광명성절경축 인터넷사 진전시회가 6일과 8일 로씨야에서 개막되었다. 《빠뜨리으며 모스크바》를 비롯한 인터넷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었다. 또한 절세위인께 수많은 나라에서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와 선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올렸다.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와 더불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청송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심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와 선물들에 뜨겁게 어려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